



##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0. 12. 29

20년 전 영하 30도를 넘기던 추운 겨울은 어디로 가고, 나뭇가지에 내려 앉아 이제 겨우 만들어 낸 눈꽃을 어느새 겨울비가 녹여 내립니다.

사랑이 최고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린 그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모든 막힌 길을 녹여 낼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 ♣ 루마니아 상황 및 펠디와라 교회 감사한 일들

현재까지도 루마니아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회가 기본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대부분 잘 이겨내고 있어서인지 이곳에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고, 지방의 집시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성도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주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어린 나이에 많은 인생의 아픔을 겪은 “미클리”의 어린 아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아래 <사진1>).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서로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 해 성탄절은 아이들과 저희들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년 이때가 아이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올 해는 많이 모일 수도, 아이들을 불러 모을 수도 없어 기존에 나오는 아이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아래 <사진2>).



<사진1>



<사진2>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디누 전도사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고, 청소 일을 하는 엘레나 자매는 늘 성도들을 살피며 권면하고 조용히 필요를 돕는 귀한 자매인데, 한 달분 점심티켓을 모아 마지막 주 감사 헌금을 드렸고, 말씀으로 잘 무장된 그리고레 형제는 늘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며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힘을 보탭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숨이 차서 들어오는 가장 나이 많으신 엘레나 할머니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감사하고, 먼 곳으로 이사했어도 이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며 어린 아들과 우리 차를 얻어 타고 오는 미혼모 자매도 감사합니다. 빠른 결혼으로 든든했던 4명의 집사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고 십대들과 주일학교 모임이 약해져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묻고 나누는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디누 전도사가 밤새 나무를 지퍼도 예배당이 추워 고생을 했는데, 가스보일러 설치 및 마지막 난방 공사를 가난한 성도들이 힘껏 헌금하여 다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 뜨르너베니 교회

올해 세례 받은 8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난한 중에도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어 그들의 섬김으로 더 가난한 성도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돕고, 교회 난방비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명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 중 사경을 헤매던 두 형제도 잘 회복되어서 감사했고, 파네 전도사 부부와 안수 집사들이 충성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뜨르너베니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진3> 뜨르너베니 교회  
마당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 모습

## ♣ 주일학교 및 제자훈련 사역, 지도자 기도 모임

펠디와라 교회는 기존 제자훈련 모임과 더불어 1월부터 새로운 그룹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라치 교회는 주일학교 전체모임은 어려워 소모임 및 제자훈련 두 그룹과 내년부터 한 그룹을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 교회 세 곳의 담임 목사와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에 걸렸어도 교회 예배는 계속 되고 있고, 지도자 기도 모임의 목회자들 중에도 두 명이 걸렸다 나왔는데, 두 주 격리 후에는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고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 을 하지만 젊은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 ♣ 가족 상황

수진이가 코로나로 남은 시험 일정이 계속 미뤄져,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서로 나이도 있어 1월에 결혼을 하였고 11월에 딸을 출산 하였습니다. 사위는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경진이는 공기업 취업을 도전하고 있고, 예진이는 고3인데, 루마니아 시민권을 얻게 되면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체될 경우 기술을 배우며 진로를 찾아 갈 계획입니다.

## ♣ 기도제목

1.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도록
2. 펠디와라, 아라치, 뜨르너베니 교회 주일학교 제자훈련에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3. 이곳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로 무장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LG폰 070 8625-7488

올 한 해도 루마니아 선교에 동참해 주신 은혜에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

## < 새해 첫 기적 >

- 반철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굽벙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앓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

모두가 맞이하는 새해를 앞두고

‘나는 어찌 도착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로 도착했습니다.

- 배만주 선교사님 가정의 고백 -